

국제예술고 유치, 여수시·시민 뭉쳤다

풍부한 인적자원·예술인프라 강점... 돌산청사 부지 확보 내달 3일 선정 앞두고 범시민유치위 구성 적극 홍보 나서

여수시가 전남도 교육청이 201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인 가칭 '국제 창의 예술고등학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수시는 최근 지역 대표 문화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한 '범시민 예술고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예술고 유치에 온 시민이 힘을 모으고 있다.

19일 여수시와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국제적 예술인재 육성 등을 위해 올해부터 설립을 추진중인 예술고는 오는 2018년 개교할 예정이며, 학년별로 음악 2개, 미술 1개 학급 등 총 9개 학급 180명 정원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설립비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260억원이 예상되며, 운영비는 매년 20억원(인건비 제외)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개교를 위한 설립 타당성 조사와 함께 진학수요 조사, 유치신청서 접수, 부지선정 추진위 구성 등을 이미 마무리했다.

이는 전남지역 내에서 예술고 설립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전남지역 250개 중학생 5만8900여명을 대상으로 예술고 진학 희망자 조사를 벌인 결과, 1700여명이 예술고 진학을 원한다는 답변을 내렸고 이 중 65.3%인 1114명이 전남권 예술고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오는 11월 3일 부지선정 위원회의 예술고 후보지 최종 선정을 통해 예술고 설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일찌감치 범시민 유치활동에 나선 여수시는 전국을 대표하는 예술의 도시라는 장점과 지역균형 발전 등을 내세워 예술고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수시는 실제 한국 초기 서양화가이자 독립운동가 김홍신(1897~1966), 한국 근대 수채화의 대가 배동신(1920~2008), 여수출신 천재 화가 손상기 화백 등 시대를 풍미한 예술인들이 대거 배출된 전국 대표 문화예술 도시로 꼽힌다.

여기에 국민 만화가로 잘 알려진 허영만 화백과 소나무를 소재로 한 세계적 사진작가 배병우, 천재 피아니스트 문지영, 전원 일가의 김정수 작가 등 지역출신 예술인들이 전국을 무대로 활발한 예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71개의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25개의 학생 오케스트라단이 활동하는 지역 문화예술 인적 자원도 풍부하다는 게 여수시의 주장이다.

특히 감성 예술교육의 산실인 오케스트라단 운영으로 지역 초·중·고 1000여명의 학생들이 관현악과 국악 등 다양한 음악을 접하면서 정가공연과 외국 초청공연에 나선 만큼 역량있는 예술인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여수시가 국제 창의 예술고등학교 본교 부지로 내놓은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3청사 전경. 청정바다와 공원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라는 점도 예술고 유치에 힘이 실린다.

세계 3대 어린이 음악단체로 꼽히는 여도초등학교 어린이 오케스트라단은 음악의 본고장인 유럽 5개국 순회연주를 이미 3차례나 했을 정도다.

국내최고 수준의 문화예술 공연장인 'GS칼텍스예술마루'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예술마루에선 오페라·뮤지컬·콘서트·연극 등 연간 400회의 수준 높은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여수지역민들은 전남도 산하기관이 사실상 전무한 여수에 예술고를 설립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여수시는 2만명이 넘는 부지 등 경쟁력을 갖춘 여수시 돌산청사를 후보지로 확보

해 부지 무상제공과 건축물 재할용을 통한 예산절감은 물론 설립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심병은 예술고 여수유치위 공동위원장은 "배동신·손상기·허영만 등 여수가 가진 훌륭한 문화·예술 인적 자원과 더불어 국내 최고 수준의 공연장 예술마루, 이순신 장군 유적 등 역사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과 만나면 높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중 여수시 관광문화교육 사업단장은 "동부권 예술인재 육성과 공교육 활성화 등 지역과 전남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예술고 여수 유치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전국 청소년 여수서 해양리더 꿈꾸다

박람회장서 해양아카데미 열려 140명 참석 다양한 교육·체험

전국 청소년이 여수세계박람회 정신 계승과 전남의 해양역사를 체험하기 위해 세계박람회장에 모였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박3일 동안 박람회장 일원에서 개최된 제4·5기 '여수청소년해양아카데미'에 전국 7개 고교 청소년 140명이 참여했다.

여수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올해 첫 시작한 여수청소년 해양아카데미는 여수세계박람회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양과 관련한 이론교육, 체험 및 실습, 현장견학을 포함한 융합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여수시는 앞서 지난 여름방학 동안 3기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미래 해양 리더로 성장할 전국 22개 고교 271명을 참여시켰다. 이번 제4·5기 해양아카데미에는 13개 학교에서 286명이 신

청해 2대대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서울 덕성여고, 서대선여고, 수원공고, 청주 여고, 대구 다사고, 대구 강동고, 전주 영생고 총 7개 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참가자들은 2박 3일 동안 해양과학, 해양생물, 해양법 강의와 이순신 리더십, 여수지역 알기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해양안전체험, 해양생태실습, 아쿠아리움, 해상케이블카, 빅오(Big-O) 쇼 등 흥미로운 체험시간을 가졌다.

또 전라좌수영 진남관과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방문해 역사와 해양의 중요성, 미래 진로 등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함께 했다.

조영은 여수시 박람회활용과장은 "이번 해양아카데미를 통해 전국 청소년들과 박람회 정신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 됐다"면서 "이들이 여수를 기반으로 한 미래 해양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여수 특산물 LA한인축제서 역대 최고 판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최근 열린 LA한인축제에서 여수명가 등 여수지역 8개 특산물 업체들이 갖가지와 계장, 건홍합 등을 판매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8개업체 3억5000만원 매출

여수지역 특산물이 미국 LA한인축제에서 대박을 터트렸다.

여수시는 19일 "최근 미국에서 열린 LA한인축제 및 우수농산물엑스포에서 여수 특산물을 판매해 역대 최고인 3억5000만원의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에는 여수의 대표 농수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가공하는 여수명가 등 8개 업체에서 32개의 품목을 출품했다. 올해로 네 번째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 여수시는 기존 참여업체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교민과 대형마트 바이어들이 선호하는 계장과 갖가지, 멸치, 건홍합, 젓갈류 등을 중심으로 판촉

활동을 벌였으며, 일부 품목은 행사 도중에 물량이 조기 품절되기도 했다.

특히 건홍합과 계장, 멸치, 갖피류 등은 유통업체 바이어들의 만족감을 높여 미주 14개 대형마트에 입점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의 성과도 냈다. 또 미국 내 홈쇼핑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면서 수출계약을 앞두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 특산물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지역 농수산물의 해외판로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LA한인축제에 참가해 총 9억 2300만원의 판매실적과 31억220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경도 복합리조트 공동청원 등 3개시 상생 추진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

전남 동부권의 여수·순천·광양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가 지난 17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3개 시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만권 상생발전을 위한 '제22차 정기회의 및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장인 주철현 여수시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조종훈 순천시장, 신태욱 광양부시장, 여수 주승용·김성근 국회의원, 순천 이정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4월에 의결한 3개 시 협력사업, 국회의원과 공동 추진을 결의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3개 시 협력사업은 3개 시 광역관광 활성화, 크루즈관광 및 공동마케팅사업단 운영, 여수공항 활성화 재정지원 공동 대응, 시립예술단 순회공연, 생활체육 교류, 광역교통망 시스템 구축사업 등 6건이다.

또 국회의원들과 공동 추진키로 한 지역 현안사업은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이순신대교) 국가관리,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부정기 국제선 운항허가,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조속 이행 등 4건이다.

이와 함께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 단체장들은 2016년 국비예산 확보와 수도권 고속철도의 전라선 운영 확대에 힘써 줄 것을 건의했고, 국회의원들은 모두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가 지난 17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3개시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양만권 상생발전을 다짐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1차 후보지에 선정된 여수 경도가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공동 청원하는 건을 비롯해 수도권고속철도(수서발 KTX) 전라선 운행 확대, 경전선(광주 송정-전남 순천 구간) 복선화사업, 남해고속도로 선형개량사업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 등 4건을 공동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여수 경도가 복합리조트로 최종 선정되면 광양만권 경제활성화는 물론 전남관광의 도약과 호남발전의 중요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3개 시와 지역정치권이 하나로 힘을 모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예향”은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입니다.

지역	구분	전화번호
지방지사 (061)	광 산	062)944-0444
	군산시	063)467-2500
	정읍시	063)531-5544
시내지국	남 원 시	063)626-1601
	순 창 군	063)653-0444
	서울보급소	02)313-5962
	장성군	394-0400
	담양군	383-8116
	곡성군	362-8111
	구례군	782-4696
	영광군	351-1004
	함평군	324-8111
	나주시	335-5501(시·군)
	화순군	374-4423
	순천시	746-8111
	광양시	792-8111
	신안군	278-8111
	목포시	276-9200
	무안군	452-8535
	남원시	283-1540
	영암군	471-1717
장흥군	863-8822	
보성군	852-9646(보성) 857-0686(별곡)	
강진군	434-6830	
해남군	537-6767	
고흥군	842-2121	
진도군	543-0100	
완도군	554-6677	
광 천	366-8375	
광 남	222-9440	
남 부	652-0175	
동 명	264-2012	
동 부	222-9054	
문 흥	225-6001	
백 운	267-4748	
봉 선	673-4698	
상 무	675-6530	
서 광주	525-3761	
송 하	372-2352	
신 안	369-0583	
양 산	675-6805	
오 치	512-1732	
웅 부	571-7658	
운 천	266-7601	
봉 남	522-7752	
우 선	512-8116	
진 남	371-9818	
중 앙	961-2339	
중 앙	222-1896	
진 남	224-6804	
침 단	673-1600	
장 평	973-2900	
치 평	224-8212	
풍 암	376-6511	
하 남	682-8112	
화 정	959-1500	
	375-9662	